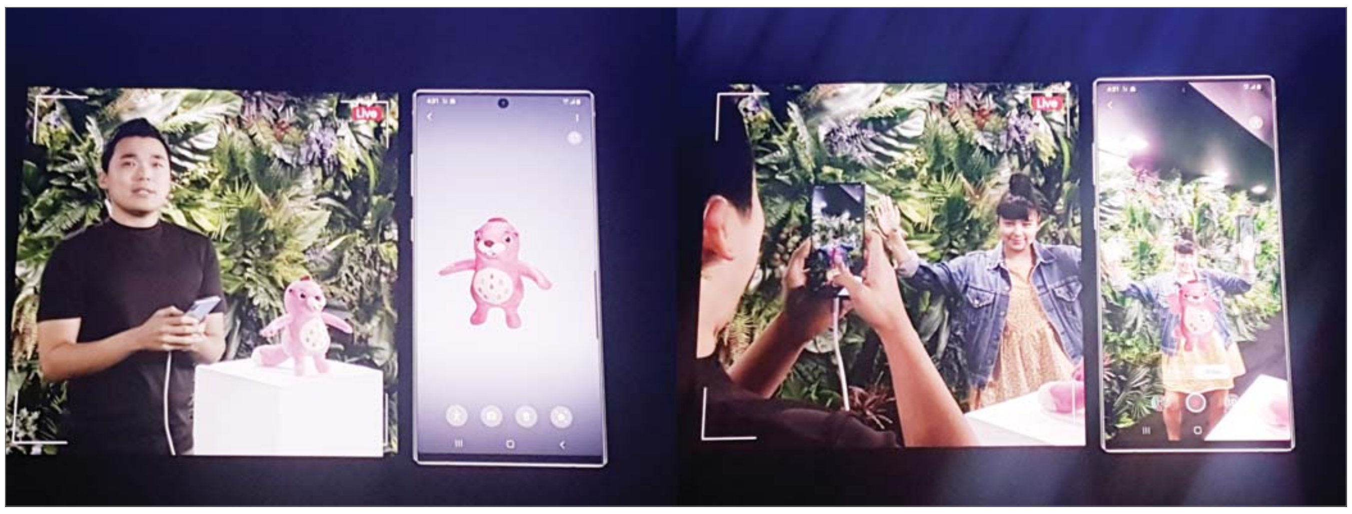
'최강 스펙' S펜·카메라, 크리에이터의 손과 눈이 되다

S펜으로 반경 10m거리서 셔터
줌인·아웃 조절돼 셀프촬영 딱
슈퍼스테디로 짐벌없이 동영상
3D모델링+모션캡처 최초 적용



삼성전자는 인형을 3D 렌더링한 결과(왼쪽)와 모션을 인식해 렌더링한 인형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실시간 영상으로 소개했다. /김재웅 기자

갤럭시 노트10은 사용자들에게 무한한 활용성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됐다.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새로운 소비자는 밀레니얼, 그 중에서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실제로 갤럭시 노트10이 새로 추가한 기능을 보면 휴대폰 한 대만으로 손쉽게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바일 기기임을 확신할 수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핵심은 카메라다. 갤럭시 노트10은 카메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데 힘쓴 모습이다. 스펙으로만 보면 전면 1000만 화소, 후면 1600만 화소 초광각과 1200만 화소 듀얼픽셀 및 망원 등 4개로 갤럭시 S10과 비슷하지만, 주변 기기를 십분 활용해 카메라를 완전히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S펜은 언팩 초대장 이미지처럼 촬영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 전작에서는 카메라를 멀리서 촬영하거나 사진에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만 활용됐지만, 노트10에서는 반경 10m 안에서 셔터와 모드 변경, 카메라 변경과 줌인/아웃까지 가능하다. 혼자서도 누군가가 찍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더 다양해진 동영상 효과는 S펜 활용도를 더욱 높여준다. 라이브포커스로 블러뿐 아니라 빅서클, 컬러포인트, 글러치 등 효과를 적용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 슈퍼스테디로 짐벌 없이 흔들리지 않는 영상 촬영도 가능해졌다.

'줌인 마이크' 기능은 번거로운 편집 과정 없이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다. 마이크 여러 개를 이용해 카메라를 줌인하면 피사체뿐 아니라 소리까지 확대해준다.

플러스 모델에는 휴대폰으로 실제 사물을 스캔해 가상 현실로 불러들이는 기능도 넣었다. ToF 카메라를 활용한 이른바 '뎁스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다. 갤럭시 S10 5G에도 ToF 카메라가 있지만, 3D 스캐닝 기능은 없었다.

화웨이가 도입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만들어진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춤추게 할 수도 있어서다. 바로 모션캡처 기능이다. 애플이 모션캡처 기능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3D모델링과 모션캡처를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은 갤럭시 노트10이 유일하다.

S펜과 뎁스비전 카메라가 컬래버레이션을 펼치기도 한다. 동영상을 찍으면서 3차원에 그림을 그리는 기능, AR 두들이 바로 그것이다. 움직이는 물체에 그림을 그리면 움직이는 대로 그림도 같이 따라 이동한다.

그 밖에 휴대폰 화면 촬영을 상단 메뉴바에서 동작하게 했고,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하는 기능도 쓸 수 있다. 크리에이터에게 필수적인 기본기다.

동영상 편집기는 간단한 영상을 제작할 때 유용하다. 영상을 합치거나 잘라 붙이는 건 물론이고, 화면 전환 효과도 준비됐다. S펜을 이용해 이미 만들어진 영상에 3차원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8월 말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SDK)를 배포하고 개발자들에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펼쳐보일 예정이다. 입맛에 따라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써도 된다는 얘기다.

/뉴욕(미국)=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샵이 '갤럭시노트 10'출시를 알리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사전예약 스타트… 124만8500원부터

갤럭시 핏·무선충전패드듀오 등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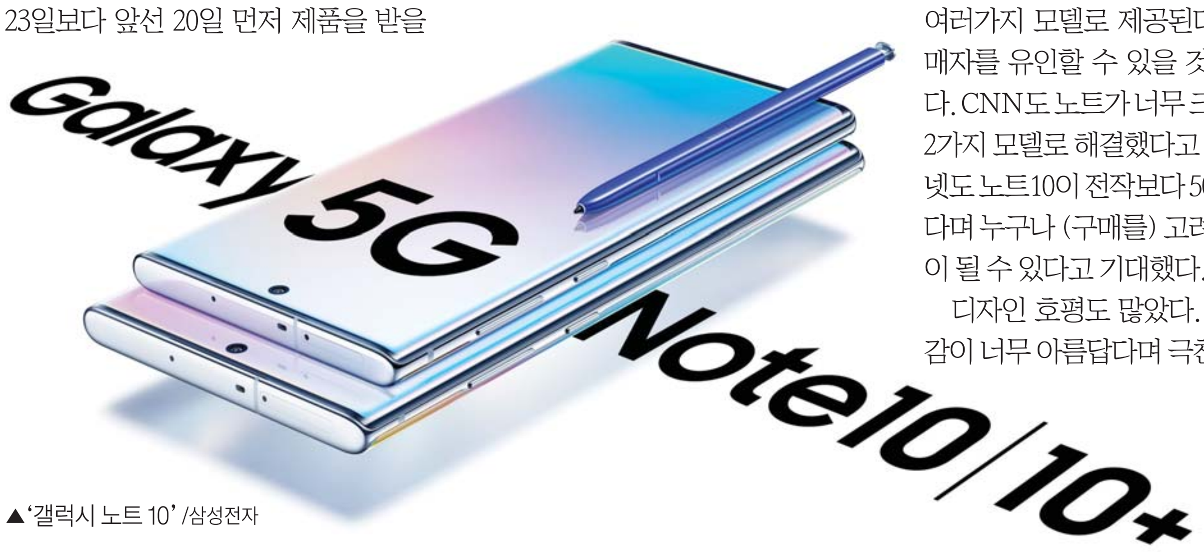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10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19일까지 갤럭시 노트10 사전 판매를 받는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10은 2개 모델로 출시된다.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노트10+로, 각각 6.3형과 6.8형이다. 더 다양한 소비자를 위해 라인업을 분화했다는 설명이다.

색상은 아우라 글로우와 아우라 블랙이 기본 적용되고, 갤럭시 노트10은 아우라핑크, 아우라 레드, 노트10+는 아우라 화이트와 아우라 블루를 각각 제공한다.

사전구매 고객은 정식 출시일자인 23일보다 앞선 20일 먼저 제품을 받을 수 있다. 26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에는 갤럭시 핏과 무선충전패드 듀오 및 클리어뷰 커버, 글랩 게임패드와 LED 커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고객에 디스플레이 파손 비용 50%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마련한다. 추가로 추첨을 통해서는 '갤럭시 팬 파티' 초대권도 증정한다. 사전구매 사은품 신청시 룰렛 이벤트를 제공해 당첨 고객에는 '프릳츠'와 '오셴트'가 제작한 텐화점 굿즈 1종을 선물한다.

내장메모리는 8GB와 12GB로, 저장 용량은 모델에 따라 256GB와 512GB로 나뉜다. 엑시노스 9825와 퀄컴 855 AP를 장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 가격은 124만8500~149만6000원이다. /뉴욕(미국)=김재웅 기자



▲'갤럭시 노트 10' /삼성전자

삼성전자, 안드로이드-윈도 경계 허문다

MS 손잡고 '갤럭시북S'에 윈도 적용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 잡고 윈도와 안드로이드 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갤럭시북S를 통해서는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보였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뉴욕 바클레이센터에서 열린 언팩 행사에서 MS와 협업을 강화키로 하고, 그 결과물인 갤럭시북S를 공개했다. 양사는 소비자들에 더 생산적이고 강력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하고, 앞으로 다양한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력해진 덱스가 첫 작품이다. 갤럭시 노트10은 '링크 투 윈도' 기능을 통해 같은 와이파이로 접속하는 것만으로 윈도 PC에서 데이터 교환과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갤럭시 노트 10은 올 가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윈드라이브와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이 자사 제품인 맥북과 아이폰 등에 도입했던 기능을 이종 운영체제(OS) 간에도 도입한 셈이다.

특히 갤럭시북S는 혁신의 첫 걸음을 내딛은 기기다. 퀄컴의 7나노미터 PC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cx'에 윈도를 탑재해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 13.3인치 터치스크린에 일체형 키보드로 업무나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제품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언더아머와 협력한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언더아머 에디션도 선보였다. 달리기 자세를 분석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통합 운동성과도 확인해준다.

/뉴욕(미국)=김재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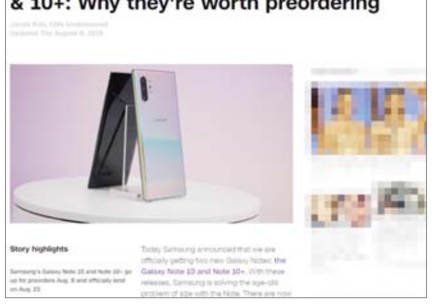
외신들 '아름답다' 극찬… "당대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

CNN·中 포털 등 기능성에 '엄지척'
고가 vs 알맞은 가격… 의견 엇갈려

전 세계가 갤럭시 노트10에 열광하는 모습이다. 가격에 대한 저항도 높지 않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매체 상당수는 갤럭시 노트10 이원화에 높은 점수를 줬다.

CNBC는 갤럭시 노트가 처음으로 여러가지 모델로 제공된다며, 많은 구매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보도했다. CNN도 노트가 너무 크다는 불평을 2가지 모델로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씨넷도 노트10이 전작보다 50달러 저렴하다며 누구나 (구매를) 고려할만한 제품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디자인 호평도 많았다. CNBC는 마감이 너무 아름답다며 극찬했고, CNN도 의심할 여지 없이 멋지다고 호평했다. 중국 온라인포털 QQ는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중앙 카메라가 더 간결해졌다는 데에 주목했다.



CNN은 '갤노트10'을 보고 선주문할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CNN 페이지 캡처

기능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다. CNN은 흰색과 검은색을 표현하는 능력과 고속 충전을 구체적으로 꼽았으며, 다른 매체들도 노트10이 당대 최고 프리미엄 제품임을 인정했다. 엑스퍼트 리뷰스는 노트10이 삼성 제품 중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라며, 어떤 제조사도 노트10만큼 다재다능하지 않다고 봤다.

중국 ZOL도 S펜이 참신한 기능과 하드웨어 사양을 개선해 신선함을 독차지했다고 언급했다. 대만 차이나타임즈도 노트10이 전작보다 기능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며, 외관상으로도 구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격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었다. 더 버지는 950~1200달러 가격대를 지적하며, 순조로운 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스퍼트 리뷰스도 가격이 비싸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대체로 이만한 제품이면 크게 비싼 수준은 아니라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CNN과 씨넷 등은 1000달러를 넘지 않는 노트10을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서술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 센터에서 개최한 언팩 행사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이 4000명 가량 다녀갔다. /뉴욕(미국)=김재웅 기자